

- [Washington D.C.](#)
- [New York](#)
- [Chicago](#)
- [Atlanta](#)
- [Los Angeles](#)
- [San Francisco](#)
- [Beijing](#)
- [Shanghai](#)
- [Shenyang](#)
- [Hong Kong](#)
- [Taipei](#)
- [Tokyo](#)
- [Toronto](#)
- [Vancouver](#)
- [Bangkok](#)
- [Hanoi](#)
- [Jakarta](#)
- [Almaty](#)
- [New Delhi](#)
- [Dubai](#)
- [Jerusalem](#)
- [Cairo](#)
- [Amman](#)
- [Nairobi](#)
- [Dakar](#)
- [Johannesburg](#)
- [Paris](#)
- [Berlin](#)
- [London](#)
- [Geneva](#)
- [Budapest](#)
- [Brussels](#)
- [Stockholm](#)
- [Moscow](#)
- [Sydney](#)
- [Auckland](#)
- [Mexico City](#)
- [Sao Paulo](#)
- [Santiago](#)

▶▶ 35개국 46개 지역
 연합뉴스 특파원이 전하는
 지구촌 소식

Articles from International

지구촌에서는 엄청난 양의 뉴스가 쏟아집니다. 장기 경기 침체와 높은 실업률에 시달리고 있는 미국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대규모 재원이 투입될 '일자리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는 PC와 태블릿PC에서 모두 구동되는 새로운 운영체제인 '윈도8'을 선보였습니다. 한편 독일 뮌헨에서는 유로존의 위기 속에서도 흥겨운 맥주 축제인 '옥토버페스트'가 막을 열었습니다. 35개국 46개 지역에 상주하는 연합뉴스의 특파원과 통신원들은 이런 뉴스를 '우리의 시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특파원과 통신원이 작성한 흥미로운 기사를 정리했습니다.



Correspondents



North America



(로이터-연합뉴스)

이우탁 특파원

워싱턴

오바마, 4천470억 달러 '경기부양안' 공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9월 8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의회 합동연설에서 4천470억 달러가 소요될 경기부양 대책을 발표했다. 이 법안은 건설노동자, 교사, 퇴역 군인과 오랫동안 실업자였던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뉴욕

주중국 특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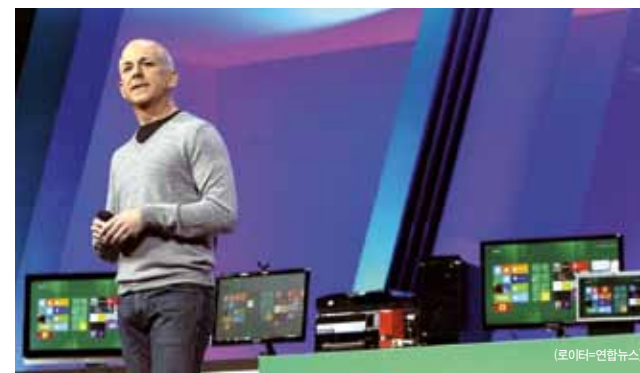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각지에서 9·11테러 10주년 추모

9·11테러 10주년을 맞은 9월 11일 뉴욕 맨해튼의 '그라운드 제로'와 워싱턴 인근의 펜타곤 등지에서 희생자를 애도하는 행사가 열렸다.

임상수 특파원

샌프란시스코



(로이터-연합뉴스)

새로운 컴퓨터 운영체제 '윈도8' 출시

마이크로소프트가 9월 13일 차세대 컴퓨터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인 '윈도8'의 개발자용 평가판을 내놓았다.

워싱턴 이우탁 특파원

오스틴



(로이터-연합뉴스)

텍사스주에 초대형 산불 발생, 주민 5천여 명 대피

오랜 가뭄에 시달리던 텍사스주 오스틴 인근에서 9월 4일부터 화재가 일어나 주택 1천400여 채가 불에 타고, 주민 5천여 명이 대피했다.

Europe

김홍태 특파원

파리



스트로스-칸 귀국 “아내와 프랑스 국민에게 도덕적 실수”

미국에서 성폭행 혐의로 체포됐다 풀려난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9월 4일 귀국했다. 그는 18일 TV에 출연해 “아내와 자녀, 프랑스 국민에게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이며 내년 프랑스 대선 후보가 될 수 없음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로이터-연합뉴스)

유철중 특파원

모스크바



아이스하키 선수들 태운 비행기 추락

러시아 중부 야로슬라블주의 한 공항에서 9월 7일 이륙하던 ‘야크-42’ 여객기가 추락해 44명이 사망했다. 이 비행기에는 야로슬라블의 아이스하키팀인 ‘로코모티브’ 소속 선수 37명과 승무원 8명이 탑승했었다.

(로이터-연합뉴스)

제네바 맹찬형 특파원

로마

이탈리아 신용등급 강등, 유로존 위기 가속화

신용평가회사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가 9월 19일 이탈리아의 국가 신용등급을 강등했다. 유로화 사용 17개국 가운데 경제 규모가 세 번째로 큰 이탈리아의 신용등급이 내려가자 시장은 큰 충격에 빠졌다. 또한 경제 위기 과정에서 리더십을 보이지 못한 베를루스코니 총리의 사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AP-연합뉴스)



(AP-연합뉴스)

박창욱 특파원

베를린

세계 최대의 맥주 축제 '옥토버페스트'

700만ℓ 이상의 맥주가 소비되는 '옥토버페스트'가 독일 바이에른주 뮌헨에서 9월 17일 시작했다. 10월 3일까지 진행되는 축제에서는 다채로운 카니발과 퍼레이드가 펼쳐진다.

삼성 갤럭시탭, 독일 내 판매금지

애플과 삼성전자의 신경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갤럭시탭 10.1'의 독일 내 판매, 마케팅 금지가 9월 9일 확정됐다.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모던한 형태, 평면 스크린 등 닮은 느낌이 있다"고 말했다.



김종현 특파원

도쿄



(모니터-연합뉴스)

노다 요시히코, 일본 95대 총리로 선출

9월 2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민주당 대표가 내각을 발표하고 총리에 취임했다. 노다 총리는 당내 여러 세력을 골고루 등용하고, 산적인 과제를 처리하기 위해 '실무형 내각'을 꾸렸다. 그는 진창을 누비는 미꾸라지처럼 열심히 일하겠다고 밝혀 화제를 모았다.

선양 박종국 특파원

충칭(중국)



(AFP-연합뉴스)

중국 중서부 지역에 폭우, 산사태

쓰촨성과 산시성, 구이저우성 등에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폭우가 쏟아졌다. 홍수와 산사태로 인해 이재민 1천200만 명이 발생했다.

알마티 이희열 특파원

두산베(타지키스탄)



(로이터-연합뉴스)

독립 20주년, 세계 최장 깃발 행진

중앙아시아의 타지키스탄 두산베에서 독립 20주년 기념일인 9월 9일 길이 2천11m, 무게 860kg의 대형 깃발 행진이 열렸다.

유창엽 특파원

뉴델리



(로이터-연합뉴스)

인도-방글라데시 영토 문제 해결 합의

인도의 만모한 싱 총리가 9월 6일 방글라데시를 방문해 두 나라의 국경 중 명확치 않은 6.5km 구간을 조만간 확정키로 합의했다.

요하네스버그 김민철 특파원

나이로비(케냐)



(로이터-연합뉴스)

송유관 폭발로 120여 명 사망

케냐 수도 나이로비의 산업단지인 룡가룽가에서 9월 12일 송유관이 폭발해 120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